

‘휴스턴 스트롱’ 창단 55년만에 WS 우승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2017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승리한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선수들이 서로 일싸안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 MLB 월드시리즈 결과

WORLD SERIES 2017

월드시리즈 (7전4선승제)

1차전	1:3	★
2차전	7:6	★
3차전	5:3	★
4차전	2:6	★
5차전	13:12	★
6차전	1:3	★
7차전	5:1	★

휴스턴 애스트로스 (아메리칸리그) vs LA 다저스 (내셔널리그)

자료/MLB.com

역대 미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우승팀

2000년 이후 기준

연도 우승팀 (월드시리즈 전적 승-패)

- 2017 휴스턴 애스트로스 (4-3)
- 2016 시카고 컵스 (4-3)
- 2015 캔자스시티 로열스 (4-1)
- 201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4-3)
- 2013 보스턴 레드삭스 (4-2)
- 2012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4-0)
- 2011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 (4-3)
- 2010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4-1)
- 2009 뉴욕 양키스 (4-2)
- 2008 필라델피아 필리스 (4-1)
- 2007 보스턴 레드삭스 (4-0)
- 2006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 (4-1)
- 2005 시카고 화이트삭스 (4-0)
- 2004 보스턴 레드삭스 (4-0)
- 2003 플로리다 말린스 (4-2)
- 2002 애너하임 에인절스 (4-3)
- 2001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4-3)
- 2000 뉴욕 양키스 (4-1)

휴스턴 애스트로스

창단연도 1962~64년 '45구경 클럽' 65~현재 '애스트로스'

연고지 텍사스주 휴스턴

현 감독 A.J. 린치(2015~)

홈구장 미닛메이드 파크(2000~)

역대 주요 월드시리즈 1회 우승(2017), 리그 2회 우승(2005, 2017), 지구 7회 우승

월드시리즈 7차전 LA 5-1 꺾고 4승3패...네 경기 연속 홈런 스프링어 MVP...허리케인 신음하던 휴스턴 주민들 환호



메이저리그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6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승 가뭄에 시달린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마침내 55년 한을 풀었다.

휴스턴은 2일 미국 다저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7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 4승제) 최종 7차전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5-1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3패를 기록, 최후의 승자가 됐다.

1962년 45구경 콜트(the Colt .45)로 출발해 1965년부터 애스트로스라는 이름을 쓴 휴스턴은 창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최정상에

올랐다. 텍사스주 남동부에 있는 휴스턴은 지난 8월 허리케인 '하비'로 80여 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미국 내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당했다. 실의에 빠진 휴스턴 주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준 게 연고지 야구팀 휴스턴이다.

‘휴스턴 스트롱(Houston Strong·강한 휴스턴)’ 패치를 붙이고 경기장에 나선 휴스턴 선수들은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했고, 디비전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를 3승 1패로 물리쳤다. 휴스턴은 챔피언십시리즈 7차전에서 양키스를,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다저스를 격파하고 구단 사상 첫 우승을 완성했다.

그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다저스의 철옹성 마무리 켈리 안션을 공략해 역전승을 일궈낸 휴스턴은 5차전에서는 13-12의 극적인 승리를 따냈다.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7차전 투런포를 포함해 단일 월드시리즈 첫 네 경기 연속 홈런을 터트린 조지 스프링어에게 돌아갔다. 스프링어는 월드시리즈에서 5개의 홈런을 터트린 역대 3번째 선수가 됐다.

휴스턴은 1회 초 선두타자 스프링어가 다저스 선발 다르빗슈 유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익 선상 안쪽에 떨어지는 2루타로 연결했다. 알렉스 브레그먼의 내야 땅볼 때는 1루수 코디 벨런저의 송구 실책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도루로 3루까지 진루한 브레그먼은 호세 알투베의 1루수 앞 땅볼 때 홈을 밟

았다. 휴스턴은 2회에도 브라이언 매켄의 볼넷과 마윈 곤살레스의 우중간 2루타로 무사 2-3루 기회를 잡았다. 1사 후 2루수 앞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았고, 계속된 2사 3루에서는 스프링어가 한복판 직구를 통타해 중월 투런 홈런으로 연결했다.

다저스가 29년 만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겨냥해 영입한 ‘우승 청부사’ 다르빗슈는 3차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2회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3회부터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를 올리며 승부수를 띄웠다. 커쇼가 4이닝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마무리 안션(1이닝)과 알렉스 우드(2이닝)가 무실점 호투를 했지만 타선이 응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절친’ 임기영·김윤동 타이거즈 왕조 재건 이어간다



정규시즌 이어 한국시리즈 마운드서도 ‘우뚛’ 2차 챔피언십 나란히 출격 “좋은 모습 보이겠다”

KIA 타이거즈의 왕조 재건을 이끌 ‘절친’ 임기영과 김윤동이다.

올 시즌 KIA의 히트 상품 중 하나는 ‘잠수함’ 임기영이다. 시즌 출발 때만 해도 임기영은 미완의 대기이자 KIA 팬들에게도 낯선 이름이었다.

지난 2014년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KIA로 이적하게 된 임기영은 바로 상무로 입대, 전역 후 예야 새 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다. KIA에서의 첫 스프링 캠프에서의 가장 늦게 언급되던 5선발 후보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선발 첫승을 신고한 그는 세 번째 등판에서는 완봉승까지 이루며 ‘스타 탄생’을 알렸다. 두 번째 완봉승 이후 패업으로 쉬어가면서 기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임기영은 올 시즌 KIA 우승의 큰 힘이었던 선발진의 한 축이었다.

김윤동은 전역 후 두 번째 시즌에서 필승조로 자리매김했다. 5선발 후보였던 그는 4월 2일 삼성전 선발로 나와 3이닝 4피안타(2피홈런) 2볼넷 1탈삼진 4실점의 성적을 냈다.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볼펜으로 이동한 그는 이후 점점 더 긴박한 상황을 책임지면서 KIA의 필승조로 우뚛 섰다.

정규시즌 우승에 힘을 보탠 두 사람은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선발과 필승조로 잊지 못할 순간을 보냈다.

임기영은 4차전 선발로 나와 5.2이닝 6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한국시리즈는 물론 포스트 시즌도 처음이었던 임기영의 ‘배짱투’가 돋보였던 경기였다.

임기영은 “떨리기보다는 설렘이다. 매 타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던졌다 뒤에 좋은 투수들 믿고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나중에 경기하는 영상을 보니 좋았다. 볼넷이 없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든다”고 웃었다.

임기영의 뒤에 있던 ‘좋은 투수’ 중 한 명은 김윤동이었다.

임기영이 2사 2루에서 물러난 뒤 심동섭의 볼넷이 나오면서 2사 1·2루. 김윤동이 KIA의 3번째 투수로 나와 두산의 베테랑 양의지를 우익수로 돌려세우며 2-0의 리드를 지켰다. 김윤동은 7회에는 볼넷 두 개를 내줬지만 탈삼진 두 개를 보태며 친구의 승리를 지켰다.

임기영이 ‘배짱투’였다면, 김윤동은 ‘부상 투혼’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날 경기 전 김윤동은



김윤동(왼쪽)과 임기영.

훈련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렸다. 아이싱을 한 상태에서도 출격 준비가 되어있다고 출전 의지를 불태웠던 김윤동은 이날 의미 있는 홈드를 기록했다.

김윤동은 발목 통증을 안고 5차전에도 출격했다. 핵타의 갑작스러운 난조 속에 7-6까지 쫓긴 8회말, 김윤동은 무사 1루에서 등판해 민병현과 오재원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박건우를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두 번째 홈드를 기록했다.

“재미있었다”는 친구와 달리 김윤동은 긴장을 많이 했다.

김윤동은 “4차전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는 긴장 안됐다고 인터뷰했는데 5차전에서 정말 긴장 많

이 했다”며 “내가 무사 1루에서 던질 때는 굉장히 위기로 느껴지는데 TV로 그런 상황을 보면 위기로 안 느껴진다. 그래서 TV를 보는 마음으로 던지려고 했다(웃음). 선배들이 우승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다. 옆에서 보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 때도 우승은 했지만 끝난 순간 이렇게 달려 나온 적은 처음이다.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면서 달려 나왔다. 우리 불펜들이 올 시즌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불펜도 뛰어난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결과도 좋지 못했다. 그래도 한국시리즈에서 우리 불펜이 잘해줬다”고 기뻐했다.

한국시리즈를 통해 야구 키가 한 뼘 더 자란 임기영과 김윤동. 두 사람의 2017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친”은 나란히 태극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는다.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는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17 대표로 선발되어 4일 합숙훈련에 들어간다.

임기영은 “좋은 시즌을 보냈다. 우승한 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아직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준비 잘해서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오늘부터 10일 마무리카뎀프 포수 김민식 등 37명

KIA 타이거즈가 3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카뎀프를 치른다.

이번 마무리카뎀프는 정회열 퓨처스 감독의 지휘로 진행되며 코칭스태프 11명과 임기영·이민우·박정수 등 투수 13명, 이인행·김석환·최정환 등 야수 10명, 김민식·백용환 등 포수 3명 등 총 37명이 참가한다.

마무리카뎀프 선수단은 퓨처스 리그 선수 위주로 구성됐으며, ‘우승 포수’ 김민식은 타격 강화를 위해 마무리카뎀프를 자처했다. 김민식은 며칠 휴식을 취한 뒤 본진과 따로 오키나와로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오키나와 킨 구장에 캠프를 꾸리는 KIA 선수단은 4일 턴으로 실전대비 기술 및 전술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 체력훈련을 할 계획이다.

오키나와 마무리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은 광주와 함평에서 훈련을 한다. 한국시리즈 우승 멤버들은 오는 7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 일본으로 온 천 회복 훈련을 다녀올 예정이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카뎀프 참가 선수 명단

▲감독 : 정회열 ▲코칭 스태프 : 김성훈 김민우 김창희 박재용 유동훈 홍세원 신동수 정성욱 고영득 방석호 ▲투수 : 고영창 김중훈 문경찬 박정수 송후섭 유승철 이민우 이윤환 임기영 정용운 차명진 한승혁 황인준 ▲포수 : 김민식 백용환 이진경 ▲내야수 : 김성민 노관현 류승현 박효일 최승주 최정민 ▲외야수 : 김석환 이인행 이진영 전은석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